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 대회 성료

22개 팀 250여명 참가 기량 겨뤄… 사크팀, 세미프로리그 우승

세미프로 사크팀이 드론축구 전국 최강팀으로 등극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한 '2026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 대회'가 지난 8일 전주국제드론스포츠허브와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가 개발되고 보급된 드론축구 중주도시 전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201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온 대표적인 드론스포츠 행사로, 올해는 세미프로와 마스터즈, 챌린저스 리그 등 총 22개 팀, 250여 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개회식에는 세미프로팀 '사크'와 '챌린저'의 화려한 드론축구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대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지훈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원, 드론축구 관련 유관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한 '2026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 대회'가 지난 8일 전주국제드론스포츠허브와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세미프로리그에서 우승한 사크팀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관 관계자 등 내빈과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축구불 시작 행사가 이어져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본 대회는 리그별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치러진 열전 끝에 △세미프로 리그 사크팀 △마스터즈 블래스트팀 △챌린저스 한국교통대학교팀이 각

각 부문별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각 부문별 우승팀을 포함해 이번 대회의 15개 입상팀에는 전주시장상 및 대한드론축구협회장과 함께 총 1,8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는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람객을 위해 전주국제드론스포츠허브 1층 전시체험장에서 VR 드론축구 시뮬레이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의 즐거움을 더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전국 드론축구 대회를 통해 드론축구의 역동성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전주국제드론스포츠허브를 활용해 드론축구가 글로벌 드론스포츠로 더 확대되고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생활권 곳곳 '무더위쉼터' 지속 확대·운영

전주시, 지역 은행 58개소 추가 지정... 총 531곳 운영

전주지역 시중 은행들이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무더위쉼터에 더해 은행 58곳을 실내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경로당과 주민센터, 북

지시설 등 총 478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왔으며,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역 은행 58개소의 협조를 받아 무더위쉼터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는 총 53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엔 추가 지정된 은행 무더위쉼터는 냉방시설을 갖춘 생활밀착형 시설로, 외부 활동 중 시민 누구나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도심 곳곳에 위치한 은행을 활용한 만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폭염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취약계층 안부 확인 △건설 현장 및 농작업장 안전관리 △도로 살수차 운영 △그늘막 및 무더위쉼터 관리 △일몰을 비치 등 시민 보호를 위한 폭염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무더위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 보다 많은 시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생활권 곳곳의 무더위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운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이 해질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 수상자 선정

3개 부문 26개 수상작 선정

책의 도시 전주시의 대표 책 축제인 '제9회 전주독서대전'을 화려하게 수놓을 시민공모전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전주시는 '제9회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에 출품된 △전주 올해의 책 독후화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전주 독서대전 인스타툰 등 3개 부문 출품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26개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3개 부문, 총 6명의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해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독창성 △완성도 △내용 및 주제에 대한 이해도 △개인의 해석과 표현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심사할 진행,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주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에서는 '황금고라니'를 읽고, '황금고라니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요'라는 독후화를 그려준 조이인 학생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부문에서는 '눈자의 렌'을 읽고 '눈 속에 서도 빛난 용기, 나기 너에게'라는 독후감을 쓴 초등부(4~6학년) 박지유 학생과 '눈자의 렌'을 읽고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라는 독후감을 쓴 중·고등부 김수아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일반부에서는 '노 피플 존'을 읽고 '유 피플 존에서 노 피플 존으로'라는 독후감을 남긴 박현희 씨가 최우수상 수상자로 뽑혔으며, '전주독서대전 인스타툰' 부문에서는 '제9회 전주독서대전을 홍보하는 내용을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 재치 있게 표현한 '토끼와 거북, 책잔치 왔소!'라는 인스타툰을 창작한 김미아 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수상작들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9회 전주독서대전' 기간 전시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전주시장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책 읽는 도시, 글 쓰는 전주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의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전이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독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발맞춰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는 제13대 의회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의 임원진을 확정하고, 전주 버추얼스튜디오의 운영·활용 방안 논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13대 전주시의회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 출범

전주시의회는 제13대 의회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의 임원진을 확정하고, 전주 버추얼스튜디오의 운영·활용 방안 논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회는 회장 이성국 의원(효자동), 감사 신유정 의원(혁신동), 사무국장 진예찬 의원(삼천1·2·3동, 효자동)을 중심으로 김윤철, 최주만, 김정명, 윤해정, 장병익, 신동익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조성 중인 버추얼스튜디오의 운영 기반 구축과 AI(인공지능)·시각효과(VFX)·가상제작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을 핵심 연구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이를 위해 국내 버추얼스튜디오 운영 사례와 제작 수요, 운영 주체, 전문인력 등 핵심 운영 조건 점검 및 지역 창작자·제작기업의 시설 활용 방안을 비교 분석한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 강연회와 산학사제 조사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주시 여건에 입각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해 집행부에 적극 제안할 방침이다. 이성국 회장은 "전주가 촬영 중심을 넘어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는 도시로 나아가려면 시설과 함께 운영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며 "개관 전부터 현장의 수요와 운영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에너지센터, 전력수요최적화 컨설팅 제공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시민과 기관이 전기 사용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수요최적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절전 실천을 넘어 전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센터는 실제 전기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는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력수요 최적화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은 사업장과 공공기관, 종교기관, 주택 등 전기 사용 시설을 대상으

로 진행되며, 한국전력 파워플래너 시스템을 통해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월별·시간대별 전력 사용 패턴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 △전기요금제 적용 현황 등이 다. 센터는 이를 통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안정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불필요한 전력 소비와 최대수요전력을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전력수요가 최적화되면 전기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여름·겨울철 전력피크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 신청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기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전력수요 최적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에너지센터(063-905-4101)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전주매일 캠페인

완주·진안 응치전투

완주·진안 응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응치(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응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응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응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